

한우란?

한우의 가치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토종을 말하라 하면 한우, 인삼, 진돗개 정도일 것이다. 쌀, 밀, 목화도 토종이 사라졌고, 돼지와 닭도 토종을 찾기가 어렵다. 토종을 복원하기 위한 모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종자 전쟁시대인 지금 한우는 자랑스러운 생물자원이자 농촌경제의 기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한우의 학명은 *Bos taurus coreanae*로 'corea'가 들어가 있다. 한국 고유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역사속의 한우



한국의 소 사육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후한서-동이전>을 살펴보면 이미 부여, 고구려, 예, 한등지에서 모두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 기원전후 시기에 한민족 생활영역 전역에 걸쳐 소를 기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한우는 주로 의례에 제물로서 사용되거나,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우경(牛耕)'은 520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가평 이고리에서 보습들이 나왔고, 서산 명지리 호 토광묘에서도 4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보습이 발견된 것이 그 증거다. 또한, 신라시대의 인구통계 실태조사라 할 수 있는 <신라장적(新羅帳籍)>에는 사람 숫자와 함께 소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사람을 '식구(食口)', 소를 '생구(生口)'라 했는데, 이는 사람이 밥을 지어 먹는 것처럼 한우는 쇠죽을 쑤어 먹인 소중한 가축이었기 때문이다.

한우란?



외래 품종과의 교배 없이 사육되어 온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로서, 고유한 유전자 조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토종 한우는 털색에 따라 황소, 칠푼소, 흑소로 나뉜다. 한우는 과거 농사에 사용하는 일소로 사육되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육용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등급제

참고 및 발췌문헌 : 농협중앙회 「한우별곡」 / 전국한우협회 (2010) 올여바웃 한우 「All about HANWOO」

